

폭염에 전력 사용 최고치 경신...한전 '비상'

<11일 기준 7820만kW>

2년 만에 예비율 한 자리 수

9월까지 전력수급 상황실 운영

더 더운 여름... "절전 동참을"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폭증함에 따라 한전이 전력수급비상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지난 11일 여름철 피크(7820만kW) 경신으로 예비율이 9.3%로 떨어졌는데 이는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한 자리 수로 낮아진 것이다. 발전소 고장이나, 폭염에 따른 수요 폭증시 전력수급 비상단계로 진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전은 15일부터 9월 하순까

지 전력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국의 지역본부장 및 지사장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전은 혹서기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전기사용 급증이 예상되는 상가 밀집지역 등의 전력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체를 마무리 하는 등 만반의 사전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전력 소비량이 절정에 이르는 8월 2~3주에 전력사용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전력수급 비상단계 수준까지 예비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직원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비력이 500만kW미만으로 떨어지면 전력수급 비상경보가 발령되며, 500만kW부터 100만kW 단위로 준비→관심→주의

→경계→심각 단계순으로 발령된다.

한전은 수급 비상단계 진입시 대용량 고객의 전기사용을 줄이는 긴급절전 시행, 변압기의 전압조정을 통한 추가 예비력 확보 등 단계별 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올해는 폭염 등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이 9월까지 예상되므로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여름철 피크시에는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자제하는 등 모두를 위해 절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여름에는 전력수요가 크게 늘어 최대전력이 여름철 사상 처음으로 8000만kW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

도 250만kW 증가해 피크 때에도 예비율은 12.7% 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상기온,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 차질이 없도록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여름 최대전력수요는 8170만kW 수준으로 여름철 최대전력으로는 처음으로 8000만kW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본적인 전력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8월에는 기온도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평창 올림픽 이야기 만들어 보세요"

콘텐츠진흥원 창작 공모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송성각)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기념해 오는 10월 6일까지 '2016 동계올림픽 이야기 창작 공모전'을 실시한다.

동계올림픽 및 동계스포츠를 소재로 한 스토리를 발굴하고 ▲드라마 ▲영화 ▲애니 ▲에니·만화 ▲웹 시리즈 등 다양한 콘텐츠로 육성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공모전은 신인 및 기성 작가는 물론 개인 또는 팀·법인까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동계올림픽 관련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디자인, 사진 분야의 공모는 활발하게 이뤄져왔지만, 스토리를 대상으로 한 공모는 '2016 동계올림픽 이야기 창작 공모전'이 유일하다.

공모분야는 중·단편 시나리오로 ▲기획력 ▲문장력·구성력 등 작품완성도 ▲상업성·대중성 ▲개발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종 6편의 우수작품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상(1편)은 1000만원, 최우수상 2편과 우수상 3편에는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모든 수상자에게는 사업화를 위한 작품별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후속지원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더불어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가 제작자원을 통해 투자 및 사업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성각 원장은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득한 우수한 스토리가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작품이 향후 동계올림픽과 동계스포츠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작품응모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온라인(story.kocca.kr)으로 접수할 수 있고, 공모요강 및 수상혜택 등 자세한 사항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영기자 penfoot@

전력계통운영시스템 전문가 50명, 에너지 신산업 모색

한전KDN 워크숍

한전KDN(사장 임수경)은 13일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에 관한 전기학회 전문워크숍을 전력거래소, EMS 개발사(전기연구원, LS산전)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EMS 분야 산·학·연 전문가 약 50여명이 참석해 계통운영에 EMS 활용 및 개선사례, 해외 계통운영자의 EMS 기술규격 동향, EMS를 통한 ESS 최적제어 방안, EMS 정보보안 기술동향 및 적용사례 등의 주제로 발표와 열띤 토의를 벌였다.

이번 워크숍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내 최초 상용화 EMS인 차세대 EMS의 신뢰성 및 안정성을 검증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ESS, 전기차충전소 확대 등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EMS 요소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전KDN은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전력계통운영시스템에 관한 전기학회 전문워크숍을 가졌다. <한전KDN 제공>

KDN의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정부 3.0 정책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에 발맞춰 유관기관 협업·소통을 통한

국내 EMS 관련기술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속적 EMS 기술발전 및 개선사례를 공유, 국내 EMS 기술의 성숙도를 향상시키

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aT, 中 광저우 박람회서 목재제품 250건 수출상담

국내 7개 업체 참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14일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광저우에서 열린 '2016 국제 건축장식 박람회'에 참가해 우수한 품질의 국내 목재제품을 적극 홍보한 결과 약 250건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올해 18회째인 광저우 국제건축장식 박람회는 세계 각국에서 2200개의 관련업체

가 참가하고, 방문객만도 82만 명에 달하는 아시아 굴지의 대규모 건축 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는 선창산업, 동화기업, 유니드, 한솔홈데코, 선창ITS, 경민산업, 시공사 등 국내수출업체 7개사가 참가해 수출촉진제품인 섬유판(MDF)과 마루판 제품 등을 전시·홍보함으로써 국산 목재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했다.

중국을 물론 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방문한 관련바이어들은 한국 목재제품의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목재가공 기술력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현지 대리점 개설 제의와 기술협력 방안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이외에도 aT는 박람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목재시장 전문가를 초청한 수출세미나도 개최하여 글로벌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시장의 핵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 진출방안을 모색하는 정보 교류의 시간을 제공했다.

aT 김재수 사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는 임산물 수출의 최대 효자품목인 국내 목재제품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aT는 우리 목재제품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고급건축과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 홍보와 마케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삼계탕 중국 진출 날개 달았다

aT, 수출용 삼계탕 현지 물류센터 입고 기념 행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종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는 지난 13일 중국 칭다오항으로 수입된 삼계탕의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이하 aT물류센터) 입고를 기념하는 행사를 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칭다오출입경검역 검역국(CIQ)과 식품약품감독관리국 담당 공무원, 주청다오 총영사관 식약관, 칭다오aT물류 법인장, 칭다오해지촌(수입자) 대표가 참석했다.

행사는 컨테이너 실(seal)개봉, 통관서류 및 제품 비교검사, 라벨심사 및 샘플채취 등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한 상품검역 절차 순으로 진행됐다.

이 모든 과정을 CIQ 상품검역 창고로 지정된 aT물류센터 내에서 진행한 것은 검역 당국과 향후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aT의 해외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계탕은 2006년에 한국정부가 중국 측에 공식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후 검역 및 위생협상 절차가 10년 가량 더디게 진행되어 왔으나, 지난해 9월 고급건축과 가구, 그리고 인테리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해외 홍보와 마케팅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계탕 첫 입고를 축하하고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표명한 것은 향후 aT물류센터를 통한 삼계탕 대중국시장 개척에 있어 녹색불이 켜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칭다오항으로 수입된 물량은 지난 6월 29일 군산항에서 대중국 삼계탕 첫 수출 기념식을 마친 한국 삼계탕 수출물량 20t(5개사) 중 칭다오항으로 들어온 잠프레 삼계탕 5.3t, 550박스 분량으로 위생증명서가 발급되는 대로 aT물류센터를 통해 중국 전역으로 배송된 후 칭다오를 비롯, 전국 주요 유통매장에 입점 되어 정식 판매될 예정이다.

칭다오aT물류센터 성광돈 법인장은 "이번 삼계탕 초도물량을 시작으로 8월 중에 13톤(1400박스)이 추가 입고될 예정"이라며 "aT물류센터는 삼계탕의 중국시장 조기정착과 수요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박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